



# 社說

## 대학언론은 언론의 심장

### 문교부의 일방조치에 분노한다

지난 6일 정월식 문교부장 관은 35개 대학 총학장이 모인 회의에서 『대학간행물 제작을 전적으로 학생에게 맡기고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겠다』고 발언함으로써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학신문·교지·학회지 및 학생회나 학생들이 임의로 발행하는 신문류 등 대학간행물의 내용이 헌법 제 21조 제 2항에 위배될 경우 발행인·주관자와 자금을 대준 사람에 대하여 사법처리를 요청키로 했다. 문교부는 이에 따라 현재 총·학장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대학간행물의 편집·제작·판매권을 오는 20일까지 학생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지시했다. 이같은 일방적 지시는 대학언론탄압이라는 표면적인 것을 떠나, 먼저 대학의 자주권과 교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까지 될 포로 규정될 수 있다.

대학은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場)이며 이로써 존중되어야 한다.

대학신문은 학생간의 것도 교수간의 것도 교수간의 것도 아닌 대학을 구성하는 모든 대학인의 것이다. 대학신문은 이러한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꾸준한 자기비판을 하면서 대학내 각 구성원의 의사와 이해를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올바른 노력을 『운동권의 선전선동』으로 매도하며 구조적 탄압을 가하겠다는 문교부의 의도에 우리 모두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학간행물의 편집·제작·판매권을 학생에게 일임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은 명분일 뿐이다.

이로써 이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첫째, 그동안 대학의 대표언론으로서 가졌던 대표성을 상실하게끔 신문·지위의 학생신문으로 격하함을 의미하고 둘째, 이를 통해 대학내 새로운 언론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언론은 분별·현정권의 구미에 맞는 보수적 언론이 될 것인가?

또한 자율구독제 실시에 대한 발언은 헌주조하에서의 대학신문에 대한 파산선고와 같다.

현재 학생들의 등록금 내에 포함된 있는 신문예산을 중단할 경우 신문발행은 곧바로 경제적·양적으로 왜소화될 뿐만 아니라 존재의 위기로 몰릴 수 있다.

반면 새로 생긴 것이 예상되는 보수언론에 대한 지원은 민주세력에 대한 의미메달로기 공세로 작용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대학신문은 그 어떤 개별주의나 개인주의로써도 될 수 없다. 그렇기에 기저는 꾸준한 자

각각의 노력과 더불어 불의에 항거할 줄 아는 『쟁이와 투사』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우리는 이번 탄압을 학내민주세력에 대한 전면적 선전전고로 규정하고 학내의 언론단체는 물론 제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탄압을 분쇄해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다. (5월15일자 성명서발표)

지난 10일 본사를 비롯 교육방송국, Dongguk Post, 교지편집위원회, 총학 편집부가 연합하여 『동국대학교 대학언론탄압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명서를 이미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번 또 하나의 슬픈 소식을 접하였다. 같은 언론탄압에서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투쟁해오던 이원규교수의 죽음은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애국애족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불위에 떠오른 번사처럼 이어야 하는가.

이로써 현정권은 살인정권으로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며, 또한 대학언론에 대한 저들의 말살의도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지금도 다시 민주세력의 강한 결집력을 보여야 할 때이다. 학원의 자주권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 T·V화면을 지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언론에서 주장한 편집자유권은 교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제작주체의 자율권 확대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탄압을 전제조건으로 편집자유권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편집자유권은 원할하고 올바른 신문제작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탄압의 밑바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앞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대학의 자주권 수호 차원에서 모든 대학인에 의해 거부되어야 한다.

학원에서 발간되는 언론은 그 자체정화작용을 통해 신문제작의 과정이다. 그러하기에 여기에는 어떠한 외부적 간섭도 배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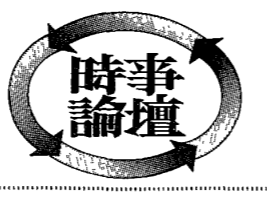
언론은 역사 앞에, 그리고 독자 앞에서 몇몇해야 한다. 이러한 언론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불행이었다.

그러하기에 무수한 탄압속에서 그 싸움을 피우지 않고 이제 성정의 모습을 보이며는 대학언론에 대해 이번 탄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어느 시대든 언론은 암흑의 시대일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대학언론이 입을 다물면 사회의 마지막 맥박이 멈추는 것과 같다.

문교당국은 이번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교권과 학원자주권 침해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 대학의 교수들은 이번 정월식 문교부 장관의 발언이 중대한 교권침해임을 각인하고 같이 부쟁해 나가야 할 것임을 밝힌다.

여러인 입을 다물면 결국은 민중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얼마전 TV에 『白凡誌』가 방영되었다. 주지하다시피 白凡은 김구 선생의 아호이고 선생은 해방전 상해임시정부의 주석으로 평생 민족의 자주 독립을위해 헌신하다가 해방후 귀국, 그때 당시 이방의 난마와 같은 정국을 수습하고 38선으로 분단된 국토를 재결합,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 백방으로 진력하다가 미처 그 고매한 뜻과 정열을 펴지 못하고 49년 피청년장교의 흉탄에 쓰러져 우리와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다.

나는 금번 수일간 연속 방영된 백범일지의 마지막 부분을 봤다. 백수에 한 젊은 20대의 군인 장교가 서대문 경교장 (지금의 고대병원)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관에서 백범일지의 비서가 반가워 맞았으며 이 장교는 비서의 안내로 곧바로 선생의 집무실로 인도된다. 선생도 내용은 이 장교를 평소부터 잘 아시는 듯 마다 안부만을 곁들여 반기지만 이할때 그 군인이 갑자기 권총을 빼고 단상하기 시작, 선생이 피부성이기 되어 완전히 숨을 거둘때까지 총격을 멈추지 않았다.

관 환원은 바뀌어 온 국민의 애과와 비분, 오열속에 거행된 장례식장이 꽤 수상한 이어서 나갔는데 마지막 『백범일지』를 이렇게 살해한 그 총악범도 우리와 같이, 이 T·V화면을 지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이 드라마의 해설자가 맨 마지막에 남겨놓은 말, 곧 백범일지의 살해범이 우리와 같이 지금 이 T·V화면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마음에 남았다. 그리고 독자 앞에서 몇몇해야 한다. 이러한 언론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불행이었다.

그러하기에 무수한 탄압속에서 그 싸움을 피우지 않고 이제 성정의 모습을 보이며는 대학언론에 대해 이번 탄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어느 시대든 언론은 암흑의 시대일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대학언론이 입을 다물면 사회의 마지막 맥박이 멈추는 것과 같다.

문교당국은 이번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교권과 학원자주권 침해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 대학의 교수들은 이번 정월식 문교부 장관의 발언이 중대한 교권침해임을 각인하고 같이 부쟁해 나가야 할 것임을 밝힌다.

여러인 입을 다물면 결국은 민중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대학간행물의 편집·제작·판매권을 학생에게 일임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은 명분일 뿐이다.

이로써 이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첫째, 그동안 대학의 대표언론으로서 가졌던 대표성을 상실하게끔 신문·지위의 학생신문으로 격하함을 의미하고 둘째, 이를 통해 대학내 새로운 언론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언론은 분별·현정권의 구미에 맞는 보수적 언론이 될 것인가?

또한 자율구독제 실시에 대한 발언은 헌주조하에서의 대학신문에 대한 파산선고와 같다.

현재 학생들의 등록금 내에 포함된 있는 신문예산을 중단할 경우 신문발행은 곧바로 경제적·양적으로 왜소화될 뿐만 아니라 존재의 위기로 몰릴 수 있다.

반면 새로 생긴 것이 예상되는 보수언론에 대한 지원은 민주세력에 대한 의미메달로기 공세로 작용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대학신문은 그 어떤 개별주의나 개인주의로써도 될 수 없다. 그렇기에 기저는 꾸준한 자

각각의 노력과 더불어 불의에 항거할 줄 아는 『쟁이와 투사』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우리는 이번 탄압을 학내민주세력에 대한 전면적 선전전고로 규정하고 학내의 언론단체는 물론 제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탄압을 분쇄해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다. (5월15일자 성명서발표)

지난 10일 본사를 비롯 교육방송국, Dongguk Post, 교지편집위원회, 총학 편집부가 연합하여 『동국대학교 대학언론탄압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명서를 이미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번 또 하나의 슬픈 소식을 접하였다. 같은 언론탄압에서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투쟁해오던 이원규교수의 죽음은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애국애족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불위에 떠오른 번사처럼 이어야 하는가.

이로써 현정권은 살인정권으로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며, 또한 대학언론에 대한 저들의 말살의도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지금도 다시 민주세력의 강한 결집력을 보여야 할 때이다. 학원의 자주권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 T·V화면을 지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언론에서 주장한 편집자유권은 교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제작주체의 자율권 확대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탄압을 전제조건으로 편집자유권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편집자유권은 원할하고 올바른 신문제작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탄압의 밑바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앞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대학의 자주권 수호 차원에서 모든 대학인에 의해 거부되어야 한다.

학원에서 발간되는 언론은 그 자체정화작용을 통해 신문제작의 과정이다. 그러하기에 여기에는 어떠한 외부적 간섭도 배제되어야 한다.

언론은 역사 앞에, 그리고 독자 앞에서 몇몇해야 한다. 이러한 언론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불행이었다.

그러하기에 무수한 탄압속에서 그 싸움을 피우지 않고 이제 성정의 모습을 보이며는 대학언론에 대해 이번 탄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어느 시대든 언론은 암흑의 시대일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대학언론이 입을 다물면 사회의 마지막 맥박이 멈추는 것과 같다.

문교당국은 이번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교권과 학원자주권 침해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 대학의 교수들은 이번 정월식 문교부 장관의 발언이 중대한 교권침해임을 각인하고 같이 부쟁해 나가야 할 것임을 밝힌다.

여러인 입을 다물면 결국은 민중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 암장의 역사청산때 민주사회가능

## 술정권의 공약은 전대미문의 속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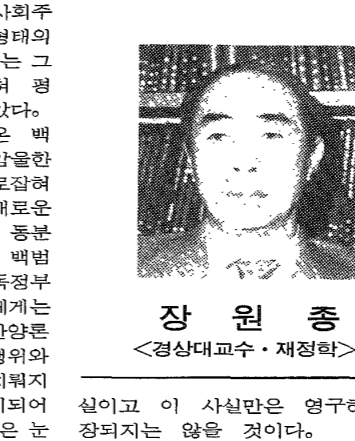
한 말은 자못 의미심장하고 아마도 현대 60대이상의 노인층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지만 50대이하의 연령층은 그렇기 함축하고 있는 깊은 뜻의 전부를 해독하지는 못할 것이다.

백범선생이 살해되자 곧바로 군·경·경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고 격분된 여론처럼 자못 요란스럽게 범인의 추적·수사활동이 전개되었다.

이때 국민은 이 범인의 체포는 시기문제라고 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백범선생의 비서와 그 주변사람들이 팔고 있는 사진대과 현역군인이기 때문에 그 신원파악이나 체포에 하등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었다.

은 그들의 기록번호와 사회주의 정부의 의의와 다른 형태의 정부수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들의 막강한 반대에 부딪혀 평양방문은 주력에 그치고말았다.

빈손으로 서울로 되돌아온 백범선생은 자신과 조국의 암울한 암일에 일시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불굴의 의지로 새로운 정부수립의 돌파구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었는데 이같은 백범의 정치노선이 서울로 단독정부 수립을 획책하고있던 이승만에게는 몹시 못마땅했고 48년 찬반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반오일행위와 다름없는 선거가 긴급히 치뤄지고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라는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백범은 눈



장원중 <경상대학교수·재정학>

심이고 이 사실만은 영구히 암장되는 양을 것이다.

# 현정권의 5공회귀경향 주시

그러나 그 살인범은 몇일, 몇달이 지나도 잡히지 않았고 그 후 범인은 백수의 서울대도를 유유히 활보하고 있다는 중보조사나오는 가운데 수사본부의 해체되고 이 엄청난 테러 살인사건은 세월이 멀어 멀어 망각의 늪에 밀려버리고 말았다.

백범선생은 해방후 미군정의 비호하에 사실상 실권자세를 해왔던 이승만과는 정치노선을 갈라 달리고 특히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에 선뜻 찬성의 뜻을 표하지 않고 평양까지 노구를 이끌고 김일성을 면담, 좌우합작에 의한 남북통일정부의 수립을 강력히 중용했으나 소련과 김일성

에 가시처럼 열론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치좌향에서 해를 넘겨 49년이되자 기술난 바와 같이 백범살해사건이 터져나왔는데 이 사건은 지금까지 전혀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채 오리무중으로 암장되어 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권력은 이사건을 일삼아 버렸으나 국민은 이 사건의 배후와 하수인이 누구인가를 다 알고 있고 심해법은 40년 전의 결과면 지금에도 살아있고 MBC에서 제작한 백범일지의 다큐멘터리드라마를 우리와함께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한 해설자의 말은 후호도 거저없는 사

해방후 여론열, 송진우, 장덕수, 김구등 유력한 정계선도자들이 배아 살해되고 단 한건도 고위상이 밝혀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수립된 이승만정권은 무소불위의 비정을 일삼아 오다가 드디어 60년 학생불기여외한 4.19혁명으로 도피하였다. 그후 공평선거에 의해 민주당정권이 등장했으나 집권년도도 채 못되어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시급히 해결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5.16군사정변에 의해 백범선생정권이 들어섰다.

백정권은 정권기간을 2년으로 못박고 2년후에는 참정권 인간

# 민주·공개·대중성 실현의 장 대야

## 올바른 대동제를 위한 제언

발 투쟁기간에 대동제기간을 배 치한것이 책임주체들의 소외를 초래할 수 있었지만 그 보다 먼저 반성해야 할 부분은 총제에 입한 대중들의 자세이다.

행사 주최자들의 독재에 열매나 대중들이 복무하는가 즉 주최자와 대중들이 일체감을 열매나 형성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올해 대동제 주제를 설정하는

상 진행되는 운영위원회는 각 대는 것이지만 총제로써는 못 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이 유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학내외적 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식의 부재에 기초한 것이다.

학생회 활동체계 속에서 제반 회의와 대중들이 일체감을 열매나 형성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올해 대동제 주제를 설정하는

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력을 담보할 내용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총제의 내용을 재차야 한다. 추상적인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아니라, 통일운동에서 제기되는 과학적 사상을 성취해 낼 수 있도록 행사내용을 준비하자.

이번 총제를 계기로 총학이 선거공약속에서 제기한 민주성과 공개성이 실현되고 대중 투쟁의 방법으로 총학총회가 주축 될 수 있도록 총학이 각급부는 각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통일·실천의 통일적 대동제를 구축하자.

# 소비주의적 행사 지양할때

## 소재...통일운동 실천력 담보해야

대 있어 나타난 문제로서, 하부 단위의 토동으로 대동제 목적의 충실내용을 상부구조속에서 결정하였은 민주성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지적할 사항이 있다.

이러한 하위적 대동제 목적의 충실내용을 상부구조속에서 결정하였은 민주성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지적할 사항이 있다.

이러한 하위적 대동제 목적의 충실내용을 상부구조속에서 결정하였은 민주성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지적할 사항이 있다.

이러한 하위적 대동제 목적의 충실내용을 상부구조속에서 결정하였은 민주성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지적할 사항이 있다.

# 공 고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교원자격증 발급신청서)을 아래와 같이 접수함.

1. 대 상 자 : 가. 1989년 8월 졸업예정자로서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나. 1981년 이전입학자로써 실과계 지정학과 졸업예정자
2. 자 격 : 교직 및 전공과목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인자(교직 과정 이수자에 한함)
3. 접수기간 : 1989년 5월 29일 ~ 1989년 6월 2일
4. 접 수 처 : 사범대학 교학과
5. 제출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 1부

1989년 5월 17일

사범대학장

# 대학언론 탄압을 규탄한다!

지난 3월말, 증권장가 유보조치 이후 노정권은 기간적 유화조치조차 포기하고 계속적인 애국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통해 과거 5공의 모습으로 회귀하려하고 있다. 정당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폭력탄압과 문·목사·이영희 교수의 구속 및 각종 운동단체에 대한 탄압에서 노정권의 반민주적·반민주적·반통일성은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어떠한 민주세력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저들의 의도는 이제 학원의 자주권에 도전하기에 이르렀으며, 학생들의 대표기구인 총학생회와 여론기구인 대학언론에 대한 구조적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일 문교당국이 35개 대학 총학장의회의에서 지시한 『총학생회 선택가입』이나 『대학언론의 학생책임제』로 가시화되었다.

분단구조의 모순된 사회의 현실 속에서 대학언론은 항상 애국애족의 입장을 견지하며 대학의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 꾸준히 매체혁신을 해왔음을 자부한다. 이러한 노력을 『운동권의 선전선동』으로 매도하고, 『학생책임제』를 통해 탄압하겠다는 문교당국의 처사에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대학간행물의 편집·제작·판매권을 학생에게 일임하겠다』는 것은 허울좋은 명분일뿐이다. 이것으로 당국이 노리는것은 첫째, 대학언론의 대표성을 빼앗음으로써 그 지위를 격하시키는 것이고 둘째, 이를 통해 대학 내에 새로운 보수언론을 만들어 냄으로써 대학언론의 자체대립과 분열을 조장해 내자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현재의 예산을 중단하고 『자율구독제』를 실시,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자체불고를 초래하게끔 한다는 데 있다. 현재의 구조하에서 예산의 중단은 현존하는 대학언론을 질적·양적으로 왜소화시킬 뿐 아니라, 존재의 위기까지 몰아갈 수 있다. 반면 새로 생긴 것이 예상되는 보수적이고 무기력한 언론에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해서 전체는 역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탄압의 의도가 분명한 이번 문교당국의 지시는 학원자주권수호의 차원에서 단호히 거부되고 분쇄되어야 한다. 대학언론의 사수가 곧 학원자주권수호투쟁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를 위해 우리는 민주적 교수·학생·직원·동문 등 학원의 주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학원자주의 주요 파견인 교원수호의 차원에서 학교당국은 의외로 대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언론인은 필화를 두려워 않고 다만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할 뿐이다.』

조선대학교 교지 『민주조선』편집위원장 고훈규 학우의 죽음을 애도하며 1989년 5월 15일

동국대학교 대학언론탄압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동대신문사·교육방송국·Dongguk Post·교지편집위원회·총학생회 편집부)

# 생활영어 탐기완성 어학연수 모집안내

미국 중류 가정에서 민박하면서 어학 연수

장 소: 미국 북서부의 록키 산맥아래 조용하고 아름다운 밴버시 근교 중류 가정과 PHENIX INTERNATIONAL CAMPUSES

연수기간: 23박 24일 1989년 7월 10일 ~ 8월 10일

참가비용: 1인당 1,800,000원

- 여행일정:
- 1 일 김포 출발 DENVER 도착후 호텔 CHECK IN
  - 2-3 일 전일관광 (DENVER 시내, 주정부 청사, 인디언 보호 구역인 CENTRAL CITY, 록키 산맥등)
  - 4 일 교육 PROGRAM에 대한 소개와 근교에 있는 중류 민박 가정에 대한 ORIENTATION
  - 5-19 일 오전: PHENIX INTERNATIONAL CAMPUSES 에서 3개 COURSE 로 나누어 생활 영어 교육 (BEGINNING, INTERMEDIATE, AND ADVANCED) 오후: 어휘력 향상을 위하여 슈퍼 마켓 등 상가를 다니며 영어 회화 실습 교육
- 주말: HOST와 또는 그의 가족과 함께 주말 여행, 위미 생활 (BASEBALL, RODEO, FISHING, CAMPING, HORSEBACK RIDING, PICNIC 등)
- 관광: 민박 체험 기간중 2일간 미국 북서부 COLORADO 또는 WYOMING 주의 거대한 농장 관광과 오두막에서의 생활
- 20 일 민박에서 호텔 CHECK IN 휴식
- 21 일 DENVER 출발 LOS ANGELES 도착후 호텔 CHECK IN 휴식
- 22 일 전일관광 (폼과 남만의 유원지 디즈니랜드 관광)
- 23 일 오전 헬리콥터 관광 후 여성 정립후 LA 출발
- 24 일 서울 도착

자세한 문서는 본대학 (주) 상진여행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희망자는 선금 300,000원을 당사 조흥은행 계좌 (310-1-157813)로 89년 6월 15일 까지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株) 尚 逢 旅 行 社 SANGJUN TRAVEL SERVICE, LTD. RM. 1102, NAM KANG BLDG., 32-2 MOOKYO-DONG, JOONG-KU, SEOUL, KOREA. TEL: 774-0501 FAX: 774-0605

### 실천종교로서의 불교인식을 위하여

# 제국주의 외세에 억압당한 민족불교

## I. 들어가는 말

격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한국 불교의 앞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불교는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 남는다면 그 비활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생존의 수준을 넘어 현대의 위기와 불안을 치유하고 미래의 건강을 위해 불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또 할 수 있는가? 사회적 현안, 본질적 도전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어떻게 난류와 칼바람과 내분으로 세월을 헤쳐나갈 것인가?

낯뜨거운 교단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1세기에 걸친 식민·분단의 족쇄를 부수고 민족 주체의 새 날을 앞당기려는 대중의 뜨거운 투쟁을 남의 일인 양 곁에서 바라보면서 한국불교의 현주소에 대해 다시금 질문하게 된다. 현재에 대한 올바른 진단은 앞날의 방향을 가늠하는 기초이다. 또한 올바른 현실진단은 과거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자기비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불교계에는 오늘날의 불교를 있게 한 근원대불교사에 관한 입체적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단지 연대기적 기술내지 사건·인물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근원대불교사에 대한 개괄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또 근원대불교의 위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하여 조선 중엽 이후의 불교의 변화까지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 II. 몸말

### 1) 사상

불교사상은 한반도에 유입된 이래 근 10여세기에 걸쳐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기능해왔다. 삼국시대 이래 고려초까지가 그렇다. 물론 유교도 그에 못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그것은 세계관의 장악이 아니라 통치의 테크닉이라는 측면에서 우세한 기능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은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종언을 고한다. 이후 불교사상은 조선 성리학의 발전과 반비례하며 그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간다.

중국 순나라 계승(契滿)의 보교론(輔教論)과 맥을 같이하는 함허기화(函虛己和)의 현정론(顯正論)은 불교의 오제가 유교의 오상(五常)과 일치한다며 성리학의 책봉론에 대항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왕권 내지 중종어인들의 비호 속에 불교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기도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조선조 성리학의 발전, 정학이라는 대세 앞에서 무력했을뿐이며, 사림들에 의한 보수(齋雨)의 장삼(杖殺)로 그 매듭을 짓는다.

불교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이러한 상황 아래 유정의 선주교종(禪主敎從) 선언은 어쩔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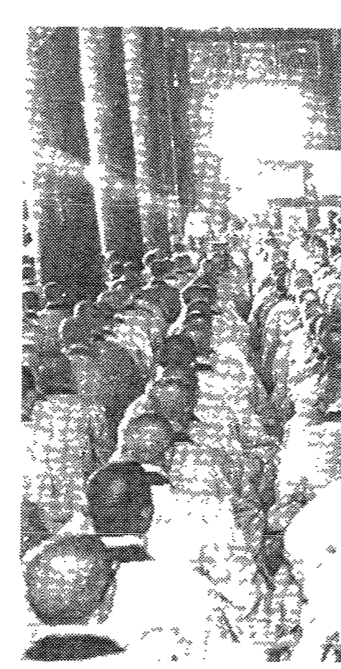
없는 자구책의 의미도 갖는다. 이는 국가권력의 지원도 받고 사림의 경제적 기반도 완전히 해빙된 상태에서 수도승 위주의 교단을 통해 불교의 명맥을 잇게 하려는 방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상황은 불교가 지배권력과 유착을 끊고,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면모를 잃을 수 있는 호기였다고도 할 수 있다. 즉 광범위한 기층 대중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면서 반봉건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의 변모를 꾀하며 새로운 사회적 약도 국가 변란시 다수의 하층층이들을 동원하려는 국가의 정책방편에 의한 것일뿐, 국가

한국불교는 신라 하대의 5교 9산 이래 고려초까지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나름대로의 종교적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적 승가공동체의 건설은 일부 선사나 총림을 중심으로 한 지극히 한정적인 현상이었을 뿐이다. 그것은 성리학자들의 비난, 국가권력의 무관심과 탄압에 의하여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것이 아니라, 산중으로 도피하여 잔재를 유지하려는 소극적 대응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불교도들은 철저하게 버려져있었다. 대부분의 절은 마을 뒷산이나 장시

격은 승려의 도성출입금지해제된 것이었다. 이는 형식상으로 1895년 갑오경장 당시 김홍집내각이 일본 승려 사노(佐野龍雄)의 청원을 받아들여 이루어졌다. 이후 이 음모 서린 왜승의 은둔에 감사해하며 권력과 재화에 눈먼 권승(權僧)들의 행태는 한국불교의 조직적 재정비의 여지마저 말살해버렸다. 사찰령에 의해 비록된 주지전철시대의 전개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불교계가 일제 시대에 조직적 항일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소강상태를 유지했던 것은 대다수의 불교도들이 철저하게 버려져있었다. 대부분의 절은 마을 뒷산이나 장시

한국불교는 신라 하대의 5교 9산 이래 고려초까지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나름대로의 종교적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적 승가공동체의 건설은 일부 선사나 총림을 중심으로 한 지극히 한정적인 현상이었을 뿐이다. 그것은 성리학자들의 비난, 국가권력의 무관심과 탄압에 의하여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것이 아니라, 산중으로 도피하여 잔재를 유지하려는 소극적 대응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불교도들은 철저하게 버려져있었다. 대부분의 절은 마을 뒷산이나 장시

한국불교는 신라 하대의 5교 9산 이래 고려초까지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나름대로의 종교적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적 승가공동체의 건설은 일부 선사나 총림을 중심으로 한 지극히 한정적인 현상이었을 뿐이다. 그것은 성리학자들의 비난, 국가권력의 무관심과 탄압에 의하여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것이 아니라, 산중으로 도피하여 잔재를 유지하려는 소극적 대응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불교도들은 철저하게 버려져있었다. 대부분의 절은 마을 뒷산이나 장시



불교의 반봉건투쟁은 그것이 제국열강들의 식민지정책에 장애요인의 하나였으므로 그간 꾸준한 탄압을 받아왔다.

한국불교는 신라 하대의 5교 9산 이래 고려초까지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나름대로의 종교적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적 승가공동체의 건설은 일부 선사나 총림을 중심으로 한 지극히 한정적인 현상이었을 뿐이다. 그것은 성리학자들의 비난, 국가권력의 무관심과 탄압에 의하여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것이 아니라, 산중으로 도피하여 잔재를 유지하려는 소극적 대응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불교도들은 철저하게 버려져있었다. 대부분의 절은 마을 뒷산이나 장시

한국불교는 신라 하대의 5교 9산 이래 고려초까지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나름대로의 종교적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적 승가공동체의 건설은 일부 선사나 총림을 중심으로 한 지극히 한정적인 현상이었을 뿐이다. 그것은 성리학자들의 비난, 국가권력의 무관심과 탄압에 의하여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것이 아니라, 산중으로 도피하여 잔재를 유지하려는 소극적 대응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불교도들은 철저하게 버려져있었다. 대부분의 절은 마을 뒷산이나 장시

한국불교는 신라 하대의 5교 9산 이래 고려초까지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나름대로의 종교적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적 승가공동체의 건설은 일부 선사나 총림을 중심으로 한 지극히 한정적인 현상이었을 뿐이다. 그것은 성리학자들의 비난, 국가권력의 무관심과 탄압에 의하여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것이 아니라, 산중으로 도피하여 잔재를 유지하려는 소극적 대응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불교도들은 철저하게 버려져있었다. 대부분의 절은 마을 뒷산이나 장시

한국불교는 신라 하대의 5교 9산 이래 고려초까지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나름대로의 종교적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적 승가공동체의 건설은 일부 선사나 총림을 중심으로 한 지극히 한정적인 현상이었을 뿐이다. 그것은 성리학자들의 비난, 국가권력의 무관심과 탄압에 의하여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것이 아니라, 산중으로 도피하여 잔재를 유지하려는 소극적 대응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불교도들은 철저하게 버려져있었다. 대부분의 절은 마을 뒷산이나 장시

한국불교는 신라 하대의 5교 9산 이래 고려초까지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나름대로의 종교적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적 승가공동체의 건설은 일부 선사나 총림을 중심으로 한 지극히 한정적인 현상이었을 뿐이다. 그것은 성리학자들의 비난, 국가권력의 무관심과 탄압에 의하여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것이 아니라, 산중으로 도피하여 잔재를 유지하려는 소극적 대응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불교도들은 철저하게 버려져있었다. 대부분의 절은 마을 뒷산이나 장시

한국불교는 신라 하대의 5교 9산 이래 고려초까지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나름대로의 종교적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적 승가공동체의 건설은 일부 선사나 총림을 중심으로 한 지극히 한정적인 현상이었을 뿐이다. 그것은 성리학자들의 비난, 국가권력의 무관심과 탄압에 의하여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것이 아니라, 산중으로 도피하여 잔재를 유지하려는 소극적 대응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불교도들은 철저하게 버려져있었다. 대부분의 절은 마을 뒷산이나 장시

- ◇글심는 차례
1. 우리에게 불교란 무엇인가
  2. 현대불교의 반성과 문제점
  3. 80년대 이후의 불교혁신운동
  4. 한국불교의 과제와 전망

이라 아닐 수 없다. 불교의 수난과 비극은 식민·분단의 민족사와 더불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3) 투쟁  
조선 후기 격렬했던 대중들의 반제·반봉건투쟁과 불교를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낯설은 작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불교는 산중은둔과 기복·장례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산중 수도와 여성들의 기복은 조선 후기 불교의 특징이자 과오였지만, 불교는 그에 못지 않게 대중과 굳건히 결합되어 반봉건투쟁을 전개했던 것이다. 불교의 반봉건투쟁사를 누락시킨 불교사학의 불교사에 불과하다. 조선 후기 반봉건투쟁의 주체는 중하층 승려들과 신앙 대중이다. 그것은 선택과 기복을 중시하는 속에서 보면 불교적 효용이 아니라 할 수 있으나, 불교적 반봉건투쟁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조선 후기 반봉건투쟁의 주체는 중하층 승려들과 신앙 대중이다. 그것은 선택과 기복을 중시하는 속에서 보면 불교적 효용이 아니라 할 수 있으나, 불교적 반봉건투쟁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조선 후기 반봉건투쟁의 주체는 중하층 승려들과 신앙 대중이다. 그것은 선택과 기복을 중시하는 속에서 보면 불교적 효용이 아니라 할 수 있으나, 불교적 반봉건투쟁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조선 후기 반봉건투쟁의 주체는 중하층 승려들과 신앙 대중이다. 그것은 선택과 기복을 중시하는 속에서 보면 불교적 효용이 아니라 할 수 있으나, 불교적 반봉건투쟁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조선 후기 반봉건투쟁의 주체는 중하층 승려들과 신앙 대중이다. 그것은 선택과 기복을 중시하는 속에서 보면 불교적 효용이 아니라 할 수 있으나, 불교적 반봉건투쟁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조선 후기 반봉건투쟁의 주체는 중하층 승려들과 신앙 대중이다. 그것은 선택과 기복을 중시하는 속에서 보면 불교적 효용이 아니라 할 수 있으나, 불교적 반봉건투쟁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 조선 후기 이래 반제·반봉건운동 가시화 민족주체 살리는 민중불교 구현이 과제

러한 폐쇄성을 넘어 현실적 변화의 물결에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김옥균을 위시한 개화파에 심대한 사상적 영향을 준 유네치, 이등인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불교계내의 어떤 조직적 뒷받침도 받지 못한 채 개인적 활동을 했을뿐이며, 더구나 불교사상의 새로운 해석을 꾀했다는 사상적 모색의 흔적도 없다. 또 일제하 합일투쟁의 사포를 위시하여 불교의 활로를 모색하는 내부투쟁을 강력히 전개했다. 그러나 그의 사상적 고부화 모색은 이후 한국불교의 올바른 자리매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정릉 후미진 곳의 초라한 기념관, 복합의 와우장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의 불교 공인이나 지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처럼 국가권력이 불교교단의 공식적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관심을 두지 않는 위기적 상황에서 불교는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폐쇄적 수도 공동체의 길일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불교는 기나긴 국가권력과의 유착을 끊고 자치적인 상가(승가) 건설의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불교는 승종규정소(僧風糾正所)를 두고 승려의 지계(持戒)와 수도를 독자적으로 행하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동시에 절제에 의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대중공사라는 대중민주주의적 정착시기가 되었다. 또 동년배끼리 모여 강제(契契)를 형성하고, 재화나 노동의 공동출자

주변 등에 위치하며 조선조후기의 격동을 대중과 더불어 겪었다. 그들은 불공, 기도, 천도재 등을 통해 대중의 기복적 욕구를 충족시켰으며, 외지할바 없는 대중들의 상담자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방치되어 있었으며, 결과 동원적 종단의 지도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후 후기 불교의 조직적 수준은 이처럼 지극히 열악한 상태였다. 일부상층의 선사들은 개인적 수도에 머물렀고 있었고 산중 총림은 폐쇄적 수도 공동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광범위한 중하층 승려와 신앙대중은 철저한 미조직 상태였다. 이러한 조직수준의 불교에게 19세기 후반기의 격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적응하기도 어려운 충격이었다.

불교계가 밀어닥친 최초의 충격은 승려의 도성출입금지해제된 것이었다. 이는 형식상으로 1895년 갑오경장 당시 김홍집내각이 일본 승려 사노(佐野龍雄)의 청원을 받아들여 이루어졌다. 이후 이 음모 서린 왜승의 은둔에 감사해하며 권력과 재화에 눈먼 권승(權僧)들의 행태는 한국불교의 조직적 재정비의 여지마저 말살해버렸다. 사찰령에 의해 비록된 주지전철시대의 전개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불교계가 일제 시대에 조직적 항일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소강상태를 유지했던 것은 대다수의 불교도들이 철저하게 버려져있었다. 대부분의 절은 마을 뒷산이나 장시

진철승  
<한국종교연구회연구원>

**베비라 창립 10주년**

이제 태어난지 10년. 저희 베비라는 10년을 하루같이 보다 나은 육아 환경을 위해 온갖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설레임속에 태어나는 아기를 위한 출산준비물에서 토들러에 이르기까지 저희 베비라는 아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사랑스런 부모의 눈으로 보며 세심한 부모의 손길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이래 밝고 건강한 2세를 위해 매년 5대사업 행사를 전개하여 보다 나은 육아 환경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는 베비라는 알차게 자라나는 나라의 보배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베비라가 보다 나은 육아환경을 위해 매년 전개하고 있는 5대사업행사**

**사랑의 손길 대잔치** 소외된 환경의 어린이를 위해, 소비자와 함께 전개하는 범국민적 행사로 작아서 못입는 옷, 장난감들을 모아 대한 적십자사, 홀트아동복지회, 영아원 등에 지원,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연말행사입니다.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 전국 베비라 전문점 및 백화점 코너, 어린이 밀집 지역 등에서 이름표를 달아주는 행사로 미아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미아들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어린이 보호행사입니다.

**세쌍둥이 지원사업** 세쌍둥이 이상을 분만할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위로금 및 의료, 육아용품 등을 지원하여 이들이 건강한 어린이로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육아지원 사업입니다.

**귀염둥이 선발대회** 2세들이 건강의 주역이 되기를 소망하고 유아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밝은 육아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전개하는 밝고 건강한 아기의 전지입니다.

**육아 비디오테이프 대여** 올바른 출산 및 건강한 육아 교육을 위해 전국 베비라 매장에서 육아 비디오테이프 2권을 무료로 빌려드리는 사업으로, 올바른 2세 교육법을 널리 보급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씩씩하게 자라나는 나라의 보배를 위해**  
**베비라는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아복에서 토들러까지  
**(株)베비라®**  
서울 종로구 숭인동 1433 전화 (대) 233-8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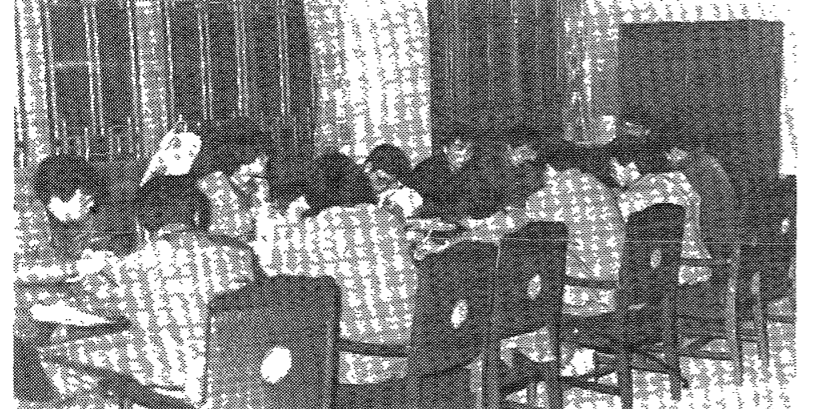


# 이사장실 점거

# 72일만에 농성 풀어

## 재단 전입금·기숙사 건립 합의 「기금조성위」 구성에 학생 빠져

재단·학생협상이 지난 16일 오전 11시 李智冠총장, 黃彰鎰 이사장, 김성규(사학 4) 총학생회장, 이승민(영문 4) 학사부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학사회의실에서 열렸다. 황이사장은 학생측에서 재



△학생들은 재단이이사장실 점거 72일만인 지난 16일 재단전입금확보, 기숙사건립 등을 재단측과 합의하고 농성을 풀었다. <사진은 이사장실점거농성장면>

재단 전입금 확보 연간 5억원 이상 보장 ▲5백명 수용규모의 기숙사를 89년 10월 초 착공 ▲재향군인회(동국빌딩) 연내 착공 ▲재단기금조성위원회를 구성할 것 등을 전

오는 23일 축제선포·학자부 1주년기념식에서 학생들에게 공개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재단환상화추진위원회와 함께 장·단기발전을 위한 모금사업추진, 수익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재

단기금조성위원회를 결성했다. 재단기금조성위원회는 재단 3인, 학교당국 3인, 교수대표 2인, 동문 2인, 불교계인사 1인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은 회의에 참가, 발언권만은 갖는다. 또한 본위원회는 모금사업, 수익사업, 법인발전 마스터플랜구상, 재단전입금조성 등을 가능케 한다. 한편 학생들은 이번 협상 타결로 지난 3월 28일부터 72일간 실시했던 재단이이사장실 점거농성을 16일자로 철회했다.

# 편집권 독립... 빛좋은 개살구

## 오는 20일 문교부 발표 주목... 정론직필 각인

문교부는 지난 6일 대학신문·교지·학회지 및 학생회지 학생들이 임의로 발행하는 신문류에 대한 간행물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발행인, 주간과 자금을 대준 사람에게 대해서 사법처리를 요청키로해 대학가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문교부는 발표를 통해 「대학신문, 교지, 학회지 등 대학간행물들이 운동권의 선전 선동매체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는 「북한의 주장을 논평적으로 담거나 내 신각한 지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간행물의 제작, 편집, 판매 등 일체의 권

한은 오는 20일까지 학생들에게 넘겨주는 대신 그 이후 간행물의 내용이 선정됨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본사에서는 문교부의 발표가 총학생회장에게 선동의 방침을 내세운 것까

지가 학생운동권의 조직·이념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임을 밝히며 과내언론매체인 교육방송국, 동국포스트, 교지편집위원회, 총학생회부를 5개기구와 대한연문단립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지난 10일 구상, 지난 15일 「대한연문단립을 모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학생들은 오는 20일 문교부의 발표 향방이 주목되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6일 대학의 움직임은 혼란에 빠트리고 내부분열을 조장, 「공권력」이란 촉매를 합리화시키려는 일련의 진행단계임을 볼때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자주·민주·통일의 과제를 안고 현실을 헤쳐나가는 불투명한 곳곳에서 일고있다. 이에 발맞추어 본사를 포함한 자유언론실천대학신문기자연합회, 대한연문단을 필적, 양적으로 왜소화시키려는 세력에 굴하지 않고 뜻뜻히 편승을 가다듬어 정론직필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있다. <取材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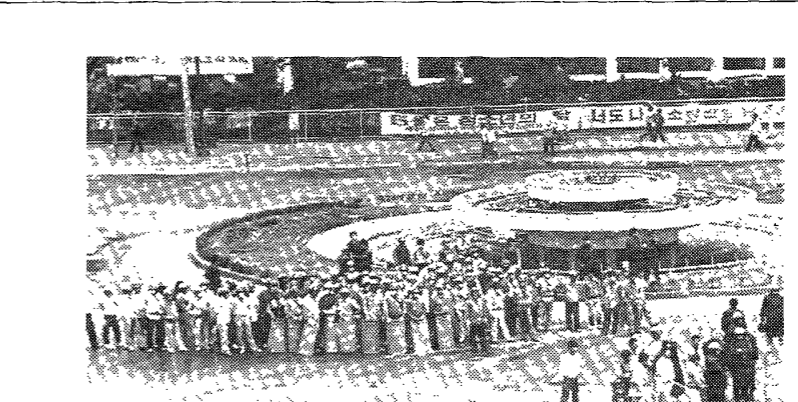
# 1백억 모금 본격 추진

## 직원노조 인사문제 시정등 요구

서울캠퍼스 직원노조(위원장 신상규)는 지난 16일 오후 3시 동국관 L101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그동안 학교측과 협상이 이뤄지지 못한 임금인상·인사문제 시정을 위해 학교측에 오는 18일 단체협약 재교섭을 요청하고 직권전재가 「단체협약 이행하라」는 내용의 리본을 착용하기로 했다. 리본에는 따르던 현재 기

본급 5%인상의 수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부합사(주입급) 이하 직원에 한해 10%를 인상해 줄것, 학과과 주임과 역경원 업무부장등 현 재 공석중인 5개보직의 인사를 단행할것, 성명을 밝히기를 거부한 부당인사조치 2인의 내역을 공개할것등을 주장한 것으로 아직 학교측과 협상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

학국은 이번 동·연정부 임명위원회에 대해 「기존의 임명위원회가 동연의 독자적인 사업을 해치지 못하고 마지막 동연이 총학의 하부기구로서 전락하는 경향과 집행부들의 성실성부족등의 이유로 동연회칙 26조 3항에 의거, 집행부를 전원해임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의에서는 신규동아리발매정에 대해 활동비율과 축적률이 많은 동아리와 지난해 대표자회의속에서 다수투표한 동아리부터 밤을 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한편 동연 신입 집행부 임명위원회는 오는 17일 대자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신규동아리 최종 배정에는 각 동아리 신규회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결정짓게 된다.



**경찰의 도청 사수**  
80년 5월 징그러오는 문화발에 맞서 끝까지 사수했던 도청, 그리고 1백만광주시민의 의지가 들리는 도청 앞 분수대. 특재자는 시민·학생·노동자의 참여는 대오가 무서워나 보다. 슬슬한 정적속의 80년 영령들의 흔해소리를 두들겨판(백곡단)까지 들림, 마고 있으니 말이다. 사진은 지난 14일 광주에서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최이철규열사추모및 폭력살인규탄대회」를 봉쇄하려는 경찰. <글=지동철기자, 사진=유원진기자>

# 교사의 민주화운동 힘찬결의

## 사범인 결의대회 "교육 적체 해소·교원노조결성을"

서울캠퍼스 사범대 학생 60여명은 지난 9일 오후 1시 「교원적체해소와 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사범사범인 결의대회」를 위한 한양대 출정식을 학원관앞에서 가졌다. 사범대 선전부장 손정규(국교 3) 등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정식은 「교사 대중의 지지 기반을 확고하고 이후 교사집단의 민주운동을 가시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교육민주화선언의 의의」를 현자형(국교 3) 양이 발표했으며, 이어 최홍순(신방한국교) 교사가 학생들을 격려의식화한다는 학부모들의 문제제기로 담임발달된 사건의 「교육민주화운동 탄압사보」를 김은주(영교 4) 양이, 교육총출투 방향을 김승호(영교 3) 등이 각각 발표한후 해산하여 개인별로 한양대에 재집결했다. 이날 오후 3시 한양대에 집결한 본교를 비롯, 성균관대,

경희대등 전국 15개사범대학 학생 8백여명은 본교사범대학 학생회장 박성철(국교 4) 등의 사회로 집회를 갖고, 임시교원양성소 저지투쟁결과보고와 문교부장관 면담요청서의 확인등을 결의했다. 집회참가진 6백여명의 학생들은 오후 5시에 본교 1가에서 4가까지 가두시위를 벌이던중 경찰과의 충돌로 일부학생들이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교과포도연합참정 및 민주교육탄압지결의대회」가 지난 11일 오후 7시 본교 학원관 소강당에서 전국교사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1부 의장·부의장선출, 2부 민주교육탄압지결의 등을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초대 의장으로 김진경(전 양교교 교사) 부의장에 신병철(성동기계고교 교사)을 각각 선출하는 한편, 교육현장의 저발전 연구활동·결과에 대한 왜곡·탄압중지, 국경교과서제지와 검인정의 확대발행, 교사블랙리스트와 교원정보부활제 등의 요구와 함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보장을 위한 「교원노조」 결성을 결의하기도 했다. 서울캠퍼스교 본교교과 주최 「제 3회 도을 김용옥선생 학술강연회」가 「기원학과 불교유식」을 내용으로 지난 10일 오후 3시 학생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강당에서 열렸다.

**알맹감사 숭신수법(?)**  
어 자신에게도 신신해 보 면 어떨는지요?  
어제나 할대주  
어... 얼마전 청와래 아저씨가 실시한 특별알맹감사에 걸려 몇몇 고위공직자께서 직장을 잃게 되었다고.  
내용인즉, 시국·국민경제에 개되지않고 사치성공포를 치는 공직자를 밝혀내라는 열병에 몇몇 사신(?)이 강한 분들이 폭심(?)으로 맞서다 K·O패 당했다는데...

**편집권 독립 해석**  
어... 「대학간행물의 편집·제작·판매권을 학생에게 일임한다」는 논리를 좋은 명분 아래 대학원들의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본사를 비

**어제나 할대주**  
어... 「박종철군은 너를 버리고 고문치사 했지?」「아니, 우리가 필」  
『질인숙양 성교문 사실이지?』  
『어떻게 인간이 그럴수있나, 그 여자는 할간쯤이 한참 들어서 그런

**(?) 다칠 듯...**  
어... 「아드레날린 문고리...」  
어... 「동학의 화장은 푸러움과 스미의 장(場)이 패간다고(?)」  
우리 학교의 화장은 문고리가 제대로 달렸지만 일을 벌일 학생들의 영거주촌한 자세가 마치 동학의 현상을 반영하는 듯한 비약까지 하게 돼...  
그동안 학생들의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드레날린 문고리**  
어... 「아드레날린 문고리...」  
어... 「동학의 화장은 푸러움과 스미의 장(場)이 패간다고(?)」  
우리 학교의 화장은 문고리가 제대로 달렸지만 일을 벌일 학생들의 영거주촌한 자세가 마치 동학의 현상을 반영하는 듯한 비약까지 하게 돼...  
그동안 학생들의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신껏 밀어붙인 독심, 암행감사에 K·O패**  
이소식을 접한 한 시인은 「평소의 소신으로 공포공 배리다가 패배하게 되었다고, 기회에 취미를 아예 집업으로 바꾸는게 어때냐」고 밝혔다.  
덧붙여 추회전부대주 「알맹감사를 남에게만 시킬것이 아니라 숭신수법하

못한 교내언론사들이 대학 언론탄압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 서명운동을 전개함에 학생들의 자극적인 서명운동에 대한 참여와 지지를 비라며...  
「자유언론수호」, 「학원자주권 수호」, 「교원수호」의대외에 손에 손잡고 연대를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어... 「이철규군은 고문사가 확실하죠?」  
그 대답에서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는 면모를 과시,  
어제나 김교리를 감추려 남에게 제 폐에 걸리던 똘을 되풀이 하다가 큰 귀

고쳐지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열망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엔돌핀」배출은 안돼고 계속 「아드레날린」만 나오다간 동학인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질지...

**학생 해외유학·연수여행 - 제주·투어 Edu-Tour INTL**

**'89 여름방학 학생 해외연수 모집**

런던대학 어학연수 및 유럽6개국 문화기행 28일간	7.12~8.8 7.26~8.22	2,830,000
런던대학 어학연수 및 유럽인레스 유럽여행 33일간	7.22~8.23 8.5~9.6	1,600,000
유스포드 어학연수 및 유럽6개국 문화기행 29일간	7.20~8.17	2,780,000
중고생을 위한 영어어학연수 및 유럽문화기행 28일간	7.22~8.17	2,810,000
UCLA 어학연수 및 미국일주 문화기행 26일간	7.16~8.10	2,780,000
뉴욕대학 어학연수 및 미국일주 문화기행 26일간	7.22~8.16	2,720,000
하와이대학 어학연수 및 미국일주 문화기행 27일간	7.23~8.17	2,840,000
유럽어학연수	7.10~8.2	2,990,000
유럽음악연수	7.10~8.2	2,970,000

**런던대학 어학연수 설명회**  
일시: 6월 1일(목) 오후 2시, 7시  
장소: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서울신문 20층)  
후원: 영국항공(British Airways)

**나드리 세계여행 '89 바캉스 특선**

마닐라 4박5일	498,000	7/22, 7/26, 7/29, 8/2, 8/5, 8/11	총6차(선착순 30명)
말레이시아·싱가폴 7박8일	935,000	7/27, 8/3, 8/10	총3차(선착순 20명)
일본 나가사키 2박3일/3박4일	395,000/495,000	7/28, 7/31, 8/2, 8/4	총4차(선착순 30명)

**(株) 서울항공**

※싱가폴행은 현지 및 항공사정책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문의주시면 유학연수에 관한 26page원세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접수마감: 6월 15일)  
●본사(시청양) 755-5588(대) 755-9696(대) ●종로(YMCA 빌딩524호) 755-1144  
●동대문 278-9996 ●부산 245-3995-6 ●대구 425-0501-2 ●대전 252-8088 ●광주 53-5355 ●강릉 43-8889 ●춘천 51-8855 ●전주 83-2254 ●광주 223-9811 ●제주 63-9562

# 민족해방의지 고취시키는 혁명적대작

× × ×  
올해로 반미민족해방투쟁의 성전에서 혁명투쟁의 수련을 애국열사들이 산화해 가신지 어언 40여 해를 맞는다. 오로지 조국을 할라는 불타는 열망으로 민족주의의 주주인 애국세력과 맞서 싸우다가 쓰러져간 그분들의 고귀한 넋은 해를 날수록 짙어져 가는 꽃으로 피어올라 조국의 대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열사들의 피

다.  
그렇다면 자주·민주·통일의 한 걸음 향해 해방의 별관으로 가기까지 아직 험난하고 넘어야 할 고봉준령이 많은 이 때에 문화예술이 해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진정 천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반미투쟁의 시대인 지금 시는 무엇을 노래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어느 정도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필자가 최근에 읽은 혁명적 대작 『붉은 산 검은 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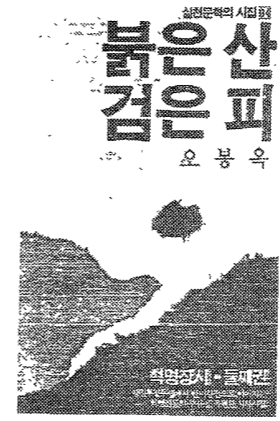
계관 형성에 이바지하는 데서 시작 작품을 말한다.  
다시말해 이러한 혁명적 대작은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줄거리로 하여 우리나라 혁명운동의 주역 끝내는 승리한다는 혁명에 대한 믿음을 교양시킨다. 때문에 혁명적 대작은 민족들에게 강력한 인적 교양적 역할을 하며 그들을 변화운동으로 절기시키는

자로서 들어온 미국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계기이다. 『붉은 산 검은 피』는 46년 10월 인민항쟁과 『화산탄광노동자 대항쟁』을 통해서 발발까지 무장한 재조국을 집착한 민족주의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이다.

왜냐하면 『붉은 산 검은 피』에서는 서사에서 맺을 시까지의 전과정을 항일투쟁투쟁에서 빨치산 투쟁으로 그리고 광주민중항쟁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혁명전통의 역사를 비타협적 투쟁정신으로 일관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 붉은산검은피 오봉옥작

“항일무장 투쟁에서 해방공간 까지를 배경으로 준엄한 계급투쟁과 혁명운동의 역사를 반영, 혁명투사의 전형적 형상을 창조하고 민중들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에 기여.”



붉은 산 검은 피 오봉 옥  
『붉은 산 검은 피』는 1930년대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시기부터 1946년 10월 인민항쟁까지를 역사의 배경으로 하고있는 혁명적 대작이다. 여기서 혁명적 대작이라 함은 위대한 혁명적 변혁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하여 준엄한 계급투쟁과 혁명운동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폭넓게 반영하여 혁명투쟁 속에서 성장·발전하는 혁명투사의 전형적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민중들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에 이바지하는 데서 시작 작품을 말한다.



빛한 합성소리가 귓가에 정정하게 울리는 듯하고 낭자하게 피를 흘리며 군부독재에 쓰러져가는 열사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연히 떠오르는 듯하여 가슴이 진동하는 오월, 그 한복판이다.  
그러나 아직도 조국분단의 원흉 미제와 패국도당들은 애국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의 재적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욱 광기스런 계 위둘러 대고 있으니 우리 애국민주세력은 오직 강철같은 투쟁의 대오로 단결해야 할 것



살아있는 당신에게 류희안  
〈문과대 극문과〉

나는 당신에게 죽음을 말한다  
제나라 군인이 제 나라 동포를 학살하는 명에서  
조심조심 살겠다는 당신의 비겁한 뒤투수에  
죽음의 칼날로 새겨진 나의 죽음을 말한다  
탄생을 소리 하나 없던 불온한 새벽  
민주주의 대신 시커멓게 물러온 계급군의 LMC에  
산산조각 찢겨진 붉은 삼삼을 말한다  
그 치열한 죽음을 말한다  
피로는 총소리만 넘어오던 도성의 담바라 밑  
굴비처럼 끌려나가 돌아오지 않는  
동지의 주검조차 끌어안을 수 없는  
통한의 5월, 조국의 어두운 하늘 밑에서 나는 절묘하게  
당신을 향해 죽음을 말한다  
죽음이 아니면 끝장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정면대결을 원한다  
파소의 총칼 쓸어버릴 革命的 대결을 원한다  
파소의 세상에서 사는 모든 당신들께  
개같은 삶이나 인간다운 삶이나가 남아있다  
개같은 죽음이냐 革命的 죽음이냐가 남아있다  
무덤도 없이 떠도는 나와 수천의 동지들은  
죽어갔다  
때문에 우리들은 5월마다 살아와  
당신들의 곁에 서보기도 하는 것이다  
당신들의 손(手)에 번뜩이는 칼날을  
켜어주는 것이다.

# 민중의 생존권 다룬 마당극



지난달 29일 경주 서라벌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있었던 극단 두두리의 제3회 정기공연인 민속극 『밤』은 그간 경주에서는 자주 접할 수 없었던 마당극공연이었다는 점에서 공연의 완성도 여부를 떠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겠다.  
60년대 말부터 대화가 주변에서 일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번져가던 마당극 운동이 80년대에 들어서는 초기의 단순 저항운동 예술이라는 편협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민중들의 억압된 삶을 신랄한 풍자와 해학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민중이 처한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독특한 민중 저항적 공연 예술양식으로 발전되어왔으며 이번에 공연한 『밤』 역시 김지하 시인의 이야기 모음집인 『밤』의 내용을 기둥주체로 삼아 민중 생존권운동 이념에 입각하여 새롭게 구성된 일종의 마당극이라 하겠다.  
각각 『동이 밤이다』 『식사가 제사』 『나는 밥이다』의 세 마당

# 민중의 생존권 다룬 마당극

『밤』 공연을 보고  
이런 공연의 첫째 마당인 『동이 밤이다』에서는 농민이 겪는 생산 순환 구조의 차단을, 둘째 마당인 『식사가 제사』에서는 종교, 문화, 행정의 사회 계층간  
에 독선과 위화간 속에서 억압을 받아온 민중이 곧 하늘이요, 주인이라는 함아설위(向我設位) 사상을 보여주었다.  
향토적 민중문화 보급에 이바지  
연기 미숙으로 내용전달은 미흡  
한 이번 공연의 첫째 마당인 『동이 밤이다』에서는 농민이 겪는 생산 순환 구조의 차단을, 둘째 마당인 『식사가 제사』에서는 종교, 문화, 행정의 사회 계층간  
에 독선과 위화간 속에서 억압을 받아온 민중이 곧 하늘이요, 주인이라는 함아설위(向我設位) 사상을 보여주었다.  
향토적 민중문화 보급에 이바지  
연기 미숙으로 내용전달은 미흡  
그리고 세계 마당에서는 개별 곳을 통하여 없어서 소외되고 폄박받는 자들의 자유와 평등과 세세상을 꿈꾸는 열원을 그렸다. 아직은 연기 미숙의 몇몇 연기

말투기! 김성림 <9>  
우리는 그저 한민족이 함께, 인강담에 생기를 뿜었던 뿐이다. 다만 그건 불이었다. 그 작은 소양은 어떻게든 많은 걸고 뜨거운 피를 요구한다 말투기.....  
야 할 것이다. 류종렬 <진보문화청년회>

고향축전  
5월의 파트너는 '낭만'  
책, 살림도구, 토론, 강의, 시험준비, 사랑 낭만...  
모두 대학시절 함께 해야 할 대학생들의 파트너입니다.  
개강과 숨겨뺀 중간고사를 넘긴 5월. 열정의 품에 마음을 맡기고 싶은 5월의 당신 파트너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잠시 동안 체인징 파트너. 모두 5월의 뜨거움에 나서 환희에 찬 낭만과 만나십시오.  
그래서 이 5월에 5월의 뜨거운 열정을 가슴으로 배워십시오. 5월, 우리의 파트너는 낭만입니다.  
포항제철은 다음 세대의 행복과 다음 세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